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쯤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주제 = 핵심소재 + 서술

정서 = (객관적으로 촉발된) 감정

첫 시작은 묘사로 시작합니다. ~가리고, ~누워, **젊은 여자**가. 즉 주어진 **젊은 여자**가 묘사의 대상이자 핵심 소재가 되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1연은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 묘사하는데, 그 묘사로 객관적으로 촉발되는 감정/정서는 무엇인가요? 아마 찾아오는 이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으니, **외로움** 같습니다.

자 머리로 읽었으니 이제는 가슴으로 읽어봅시다. 여자에게서 나로 묘사의 대상이 바뀝니다. **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즉, **특정적으로 시적화자는 자신의 아픔을 여자의 아픔과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 마찬가지로, **~내 건강도~** 라면서, **그 여자와, 나를 동일시하며, 둘 다 회복되기를 바라며** 정서는 집약되고 있습니다.

첫 연은 **늙은 나무**를 만나며 시작합니다. **묵중**하게 서 있군요.

두 번째 연에서도 **‘그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추위** 보입니다.

세 번째 연에서도 **‘그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외로워** 보입니다.

네 번째 연에서도 **‘그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엇인가 **다릅니다**. 놀랍고,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습니다.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들이고, **뽑아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뿌리내렸고, **동일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상호텍스트성에 따라서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작품을 출제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묘사로 시작한 뒤 동일시**, 하게 되는 것이 공통 주제이자 시상 전개방식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인물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박목월의 시는 **반복/변주**되며 **나무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tip 변별력 확보 선지의 특징

<아! 다르고 어! 다르다>

2.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아! 와 어!는 다르다... 어는 오답이다.

- ① 아 ② 아아 ③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④ 아! ⑤ 어 정답은?

(설마 틀린 학생 없죠? 정답은 5번입니다.)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여자 즉, **사람**에 대한 묘사를 했지, **사물**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주제를 정리하면, (가)시는 **1연에 여자를 묘사하고, 2연에 여자를 나와 동일시하며, 3연에서 둘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각 연에 집약된 정서/주제 였습니다.

(나)시의 1연은 **높은 나무가 묵중하고**, 두 번째 연은 **추워** 보이고, 세 번째 연에서는 **외로워** 보입니다. 네 번째 연에서는 **뽀아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뿌리내렸고, **동일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시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변주와 심화**가 정답입니다.

역시 주제,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련된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강조합니다.

주제인 **정서**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해 읽어라!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풀어봅시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 조차 없다.

여자 관찰

상황(화자)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공감 X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부정적 현실

→ 긍정적 전망

여자와 동일시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저 물려 있었다. 멍청하게 물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반복 변주

동질성

- 박목월, 『나무』 -

문학 정답 스펙트럼#논리

=>"가장 적절"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성찰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